

북한송환사업과 공모하는 ‘냉전’

- 미야모토 데루 「자두건(紫頭巾)」을 중심으로 -

임상민*
y3k76@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88서울올림픽과 ‘추리소설’ | 4. 공모하는 남북 |
| 2. ‘냉전’과 전도되는 폭력성 | 5. 나오며 |
| 3. 내러티브의 가공성과 내파하는 ‘냉전’ | |

主題語: 북한송환사업(Repatriation of North Korean Project), 88서울올림픽(Seoul olympic 1988), 추리소설 (detective story), 냉전(Cold War), 공모(collusion)

1. 들어가며 - 88서울올림픽과 ‘추리소설’

북한송환사업(일본에서는 ‘북조선귀국사업’, 북한 및 조총련에서는 ‘귀국운동’ 또는 ‘귀환운동’이라고 부름)이란 전후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들이 1959년 12월 14일부터 수차례의 중단과 반복을 거치면서 1984년까지 9만 3340명이 일본을 떠나 북한으로 향한 전후 최대의 집단이주이다(일본인 동반 가족은 6731명, 중국인 가족은 6명). 귀국자 중에는 약 1800명의 일본인 아내(日本人妻)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2년에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북한에서 귀국한 일본인 아내의 궁핍한 생활을 보도하면서 동 기사를 시작으로 일본에서는 송환사업을 재검토하는 많은 서적이 출판되었다. 이와 같은 이른바 송환사업 검증 현상은 당시 가장 정치적 문제로 화두가 되었던 ‘납치문제·핵문제를 둘러싼 일본인의 북한 및 조총련에 대한 분노’¹⁾와도 연동되면서, 당시 송환사업을 지지했던 사회당과 공산당, 그리고 신문, 잡지, 지식인의 비난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본고에서 분석을 시도하는 미야모토 데루의 「자두건(紫頭巾)」은 잡지 「신초(新潮)」에 1987년 1월에 게재되어, 1987년 6월에 출판된 『오천 번의 생사(五千回の生死)』(講談社,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1) 高崎宗司「なぜ、いま帰国問題か」『帰国運動とは何だったのか』2005年5月, 平凡社, p.6

문고판은 1990년4월)에 수록된 단편으로, 북한송환사업을 배경으로 첫 귀국선이 출항하기 하루 전날(1959년12월13일)에 발생한 재일조선인에 의한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다. 또한, 동 소설은 2002년의 요미우리신문 스쿠프 이후의 송환사업 검증 현상과 시기적으로 같은 때에 출판된 고단사문에문고(講談社文芸文庫)의 『전후단편소설재발견① 사건의 심층』(2003년6월)에도 ‘대담하고 현제적인 테마’라는 선정 기준에 의해서 수록되게 되는데, 해설에서 이구치 도키오(井口時男)는 동 소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야모토 데루의 「자두건」은 북한귀환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북한귀환 제1선이 니이가타항(新潟港)으로부터 출항한 것은 59년 12월 14일. 오늘날의 우리들은 「북」으로 돌아간 많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가혹한 생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들을 돌아가게 부추긴 요인에는 조국에도 있었을 것이고 이데올로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애당초 그들에게 일본 사회가 상당히 살기 힘든 장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대일본제국」의 죄와 벌은 그들의 신변에 부당하게 부과되어 있다.²⁾

이구치 도키오가 방점을 찍고 있는 곳은 「「대일본제국」의 죄와 벌은 그들의 신변에 부당하게 부과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며, 북한송환사업에 대한 일본인의 가해자성을 문제화하고 있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북한송환사업에 대한 일본인의 책임론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2년 스쿠프 이후에 전개된 초당파적인 비판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동 소설에서 일본인의 가해자성을 읽어내기란 어렵지 않지만, 본고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2002년의 스쿠프보다 훨씬 빠른 시기, 즉 왜 미야모토 데루는 88서울 올림픽이 개최되기 직전에 1959년의 북한송환사업을 배경으로 살인사건이라는 소재로 소설을 구상했을까 라는 점이다.

아래 주석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³⁾, 1981년 9월 30일에 제24회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
- 2) 井口時男(2003)「解説 日本の罪と罰」『戦後短編小説再発見① 事件の深層』講談社文芸文庫, pp.232-233, 이하 본문 인용은 쪽수만을 표기한다.
- 3) 88서울올림픽과 북한 관련 연보
 1981년 9월 30일-서울 올림픽(제24회) 개최 결정(11월 27일-북한, 불참을 표명)
 1982년 2월 18일-한국, 남북체육회담을 제안
 1983년 10월 9일-아웅 산 묘역 테러 사건(서석준 부총리 및 17명의 한국인과 미얀마인 4명이 사망)
 1984년 3월 30일-북한, 남북통일 팀 제안
 1984년 4월 9일-제1회 남북체육회담
 1984년 4월 30일-제2회 남북체육회담(1984년 6월 2일-북한, 로스앤젤레스올림픽 불참 발표)
 1985년 7월 30일-북한, 남북공동개최를 제안(1985년 8월 2일-한국, 남북공동개최를 거부)
 1985년 10월 8/9일-제1회 남북스포츠회담
 1986년 1월 21일-제2회 남북스포츠회담(1986년 6월 7일-한국, 북한에서 2경기 개최를 인정)

결정된 이래, 한국과 북한은 남북스포츠회담 등을 통해서 남북통일 팀 결성 및 남북 공동 개최를 둘러싸고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특히 소설 「자두진」이 발표된 1987년 1월은 1986년 6월에 열린 제3회 남북스포츠회담 이후, 북한에서의 경기수를 조율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남북 공동 개최는 실현되지 않았고, 또한 이러한 표면적인 대화 분위기와는 반대로 1983년에는 아웅 산 묘역 테러 사건, 1986년의 아시안 게임 직전에는 휴전선상에서의 총격전 및 김포공항 폭탄사건, 그리고 1987년에는 KAL기 폭파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테러 국가로서의 북한이 클로즈업되기도 했다. 당시 북한의 테러에 대해서는 중국과 소련이 참가하는 서울올림픽을 북한이 무력으로 방해할 수는 없다는 낙관론과 또 다른 테러를 감행할 것이라는 강경론이 대두되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대화와 테러를 반복하는 예측 불가능한 북한을 다음과 같이 ‘추리소설’의 알레고리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북한 연구자가 일본에 적다는 것을 새삼 통감했다. 첫째, 북한의 데이터 자체가 적고, 선전을 위해서 발표된 숫자는 있지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대상이 되는 숫자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 만큼, 추측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북은 추리소설가에 적합하다」라고 하면 연구자에게 혼이 나겠지만, 40년 가까이 연구해 온 S씨에 의하면 「일정 패턴이 있고, 그것을 알게 되면 재미없어진다」라고 한다. 추리소설과 같이, 수수께끼가 풀리면 재미없어진다고 한다. 북은 언제 추리소설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5)

북한 연구자와 북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추측’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북은 추리소설가에 적합하다’라는 것인데, 군사 평론가 오가와 가즈히사(小川和久) 역시도 거의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일본의 북한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군사 테크놀러지 소설’6)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88서울올림픽 직전에 발표된 미야모토 데루의 「자두진」이 북한송환사업 직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을 둘러

1986년 6월 10/11일-제3회 남북스포츠회담(1986년 7월 4일-북한, 5경기 개최를 요구. 1986년 7월 22일-북학, 10경기 개최를 요구. 1986년 9월 7일-북한, 8경기 개최를 요구. 1987년 3월 16일-북한, 6경기 개최를 요구)

1987년 7월 14/15일-제4회 남북스포츠회담

1987년 9월 17일-IOC, 한국 단독 개최로 초청장 발송. 한국, 공동개최는 무리라고 발표

1987년 11월 29일-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KAL기 폭파 사건. 탑승객 115명 전원 사망)

1988년 8월 26일-북한, 제4차 남북예비회담

1988년 9월 3일-북한, 불참 성명을 발표

4) 立原滋樹「ソウル五輪に不気味なカゲ」『世界週報』1988年2月16日, p.25

5) 影近(1988.6)「編集後記」『知識』, p.350

6) 小川和久(1988.10)「ソウル五輪とテロリズム」『文藝春秋』, p.96

싼 ‘추리’를 소재로 하고 있는 점과 동시대의 ‘추리소설’로서의 북한 표상은 단지 우연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올림픽 직전의 북한에 대한 많은 발언들이 동시대의 정치적인 문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1959년의 북한송환사업을 다룬 「자두건」 역시 동시대의 북한에 대한 표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02년 전후로 공론화된 북한송환사업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틀을 기준으로 동 소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이 발표된 동시대의 문맥, 즉 88서울올림픽을 둘러싼 남북관계 및 냉전체제 속에서 1959년의 북한송환사업이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유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냉전’과 전도되는 폭력성

먼저, 본고에서 고찰을 시도하는 「자두건」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시대적 배경은 북한으로의 첫 귀국선이 출항하기 전날인 1959년 12월 13일의 오사키이며, 초등학교 6학년(12살)인 ‘나’는 친구들과 함께 북한으로 귀국하기 위해서 니이가타(新潟)로 떠난 윤정철(尹正哲)의 집에 돈이 될 만한 고철이 있을까 하고 갔다가 우연히 집 근처 골목길에서 비틀비틀 나와 쓰러져 죽는 ‘소노코(園子)’라는 여자의 최초 발견자가 된다. 경찰의 수사망은 소노코와 사관적이 있는 하지만 북한으로 귀국하기 위해 니이가타로 떠난 최규일(崔圭一)을 범인으로 좁혀가는데, 사건 당일 ‘나’와 함께 고철을 훔치러 갔던 친구 ‘사루코(猿公, 본명은 猿渡佑士)’는 소노코의 직업은 ‘자두건을 쓴 점쟁이’이며 ‘사람이 죽는 날까지 맞추’는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사루코는 평소에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는 것이 특기’이기 때문에 ‘나’는 사루코의 말을 믿지 않고, 또한 경찰의 수사 결과 소노코의 출신과 ‘상당한 저축’이 있었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사루코가 말한 ‘자두건을 쓴 점쟁이’이라는 사실은 마을사람 그 누구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실리지 않았다. 그런데 사건으로부터 ‘반년 가까이’ 지난 어느 날, 누나와 함께 ‘나’의 집에 찾아온 사루코는 자신들이 ‘조선안’이라는 사실과 다음 날 귀국선을 타기 위해서 니이가타로 출발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다음 날 기차역, 배웅을 나간 ‘나’의 ‘꿇전’에 사루코는 본인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며 학교 후문 근처에 ‘자두건’을 파묻었다고 고백하는데, 사루코가 탄 배가 북한으로 떠난 ‘다다음날 방과 후’, ‘나’는 사루코가 말한 바로 그곳에서 변색된 ‘보라색 긴 천’과 그 속에 싸인 ‘작은 자기 그릇과 주사위가 5개, 텅 빈 지갑이 3개’를 발견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난다.

살인사건의 최초 목격자가 된 주인공 ‘나’는 경찰 수사 및 신문 보도 등의 공적 언설에 의해서 범인을 알게 되는 한편, 친구 사루코의 예상치 못했던 고백에 따라서 소노코를 죽인 범인이 북한으로 귀국하는 최규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남기면서 소설은 끝이 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건은 남북이라고 하는 냉전체제의 구도를 토대로 발생 및 수사망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인데, 예를 들면 재일조선인은 북한으로 귀국하는 조선인(조총련)과 이를 반대하는 조선인(민단)으로 분열되어 있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 역시 남북의 분열 및 대결 구도로 그려지고 있다.

최 씨 일가, 김 씨 일가, 일본인 아내와 헤어진 윤정철이 없어진 와타나베 아파트는 현관 열쇠가 감겨져 있고 어느 창문에도 불빛은 없고 겨울바람을 맞으며 폐허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의 부모님과 다케모토(武本)의 아버지, 앓짱(安っちゃん)의 어머니와 형도 니이가타항으로 출발하는 최 씨, 김 씨, 윤 씨를 배웅하기 위해서 국철 아마가사키역(尼崎駅)에서 오사카역으로 간 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아파트 주인은 벽과 유리창에 붙은 <몽개버려라! 북의 괴뢰 아파트>라든지 <불쌍하도다 매국·망국의 북한귀환단>이라고 하는 손으로 쓴 뼈라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오늘 아침부터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183쪽)

다섯 세대가 사는 연립주택 중에서 아이만 자고 있는 집은 라면 포장마차를 하는 두 가족이고, 그 다음은 소노코의 집, 마지막 두 세대는 같은 조선인이면서 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최 씨, 김 씨, 윤 씨들과 서로 헐뜯고 싸웠던 오 씨 일가, 그리고 혼자 사는 이 씨 할아버지이다.(188-189쪽)

북한으로 귀국하는 조총련계의 조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붙은 ‘몽개버려라! 북의 괴뢰 아파트’와 ‘불쌍하도다 매국·망국의 북한귀환단’이라는 민단에 의한 북송 저지 ‘뼈라’와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이 철저하게 조총련계와 민단계로 분리·분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은 이와 같은 재일조선인 내부의 남북 대결 구도는 1959년 2월 13일에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의 북한 귀국을 승인한 이후의 민단 측의 송환 반대 운동과 일치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당시의 기사를 살펴보면 ‘조직을 강화하자. 전국적으로 25일에 일제히 반대대회를 개최하자. 호별 방문으로 귀국 희망의 유무를 조사하고, 희망자는 설득하자—일본 정부의 북선 송환 결정에 대해서 남선계의 대한민국거류민단에서는 송환반대를 위한 투쟁 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발한 반대운동에 착수했다’⁷⁾라고 보도하고 있고, 동 기사 옆에는 각 가정을 방문 하면서 귀국을 설득하는 민단 관계자와 건물에 붙은 ‘재일한교북선송환결사반대!!’라고 쓰여진 뼈라를 캡처한 사진이 실려 있듯이, 소설 「자두진」에서 그려진 조총련과 민단의 대립은

7) 編集部「『北鮮帰還』の波紋」『アサヒグラフ』1959年3月8日, pp.10-11

당시 조직적으로 북송을 저지하려고 했던 민단의 모습과 일치하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으로 귀국하는 같은 동네 재일조선인을 배웅나간 ‘나’의 아버지는 오사카 역의 광경에 대해서 “배웅을 나간 우리들에게까지 한국계 패거리들은 「배신자」라든지 「공산주의의 망자」라고 소리를 지르더군. 조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지……”(189쪽)라고 말하고 있듯이, 초등학교 6학년인 ‘나’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동 소설에서 북한송환사업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아버지를 일부러 삽입시킨 장면은 당시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북한송환사업을 추진했던 일본적십자 및 일본정부, 그리고 초당파적인 동시대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동 소설은 민단, 즉 한국을 북한송환사업을 반대하는 폭력적인 국가로서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다. 일본의 북한송환사업을 인도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라고 강력히 반대했던 당시의 한국은 1959년 11월에 제4차 한일회담을 중지시키고 이승만 라인을 넘어온 일본인 어민 억류자의 송환을 중단시킨다. 그 뿐만 아니라, 소설 속에는 북한으로 귀국하려는 재일조선인을 저지하는 장면은 그려지고 있지만, 귀국하는 열차의 철도 노선에서 농성을 벌였던 사건과 비록 실패로 끝이 났지만 일본 거주 한국 대사까지도 연루되었다고 보도된 일본적십자센터 폭과계획 사건⁸⁾ 등, 동시대에 가장 폭력적인 사건으로 이슈화되었던 한국과 민단이 개입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또한 문제는 재일조선인의 귀국운동 당시, 가장 폭력적인 나라로 표상되었던 것은 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서는 ‘소노코’의 유력한 용의자로 한국 및 민단계의 사람이 아니라 북한으로 귀국하는 조총련계의 재일조선인이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다.

형사는 혀를 차며 경관에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살인이라고 밝혀져도 한 발 늦는다고”라고 귓속말을 했다. 그는 나중에 합류한 세 명의 형사와 무언가를 상담했다. 형사들의 말은 단편적으로 밖에 나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조선총련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니이가타항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한양 입김에 섞여 나의 귀에 닿았다.

“기어이 귀찮은 선물을 남기고 가는구만”

그 형사의 말투는 마치 소노코가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밤 오사카 역에서 니이가타로 출발한 조선인 중의 누군가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 했다.(188쪽)

8) 「日赤センター爆破計画」 「朝日新聞」 1959년 12월 17일

담당 형사는 소노코를 살인한 범인은 ‘니이가타로 출발한 조선인 중의 누군가’로 확신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폭력적인 이미지는 한국 쪽이 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노코를 죽인 범인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북한 귀국자로 확신하는 형사의 직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 결과, 북한으로 돌아간 최규일이 귀국을 위해 연인 관계였던 소노코를 죽인 것은 아닐까 라는 잠정적인 결론에 다다르는데(구타로 인한 뇌출혈로 이틀 후에 집 앞 골목에서 사망), 이러한 수사에 힘을 실어 준 것이 소노코와 최규일이 “이틀 전 한밤중에,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196쪽)라고 평소 북한 귀국을 희망하는 조총련계 사람들과 ‘헐뜯고 싸웠던 오 씨 일가와 ‘이 씨 할아버지’(민단계)의 증언이었다. 즉, 동 소설은 한국과 민단 측 사람들의 증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한국과 민단의 과격한 폭력이 편집·삭제되는 형태로 전경화되는 폭력으로서의 북한 표상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설이 발표된 88서울올림픽 직전의 북한 강경론을 쉽게 환기시킨다.

북의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①대규모의 군사충돌, ②육해상에서의 총격전 등의 작은 분쟁, ③도시의 게릴라적인 다발 테러, ④일본 등 제3국을 포함한 국제적 테러—등이 상정되어 있다. 86년의 아시아대회 직전에는 남북 휴전 라인 상에서 총격전이 연이어 발생한 후, 개최식 6일 전에는 김포공항 폭탄사건이 일어났다. 동 대회전의 긴박한 상황은 양곤사건(83년, 아웅 산 묘역 테러 사건-필자)과 함께 한국 국민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다.⁹⁾

북한에 의한 올림픽 방해 공작은 위 인용문에서 언급한 가능성 이외에도 대한항공기를 이용하는 외국 선수단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또 다시 KAL기 폭파를 시도하거나 김일성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광신자를 이용한 비행기 자폭의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었는데¹⁰⁾, 흥미로운 점은 소설 「자두건」의 구조적인 특징은 1981년의 서울올림픽 개최 결정 이후에 형성된 ‘폭력’으로서의 북한과 또 다른 테러의 가능성을 ‘추리’하고 있는 동시대의 북한 보도와 구조적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올림픽 방해공작은 조총련계 최규일의 범행과 일치하며, 사루코의 고백에 의한 또 다른 용의자설에 대한 ‘추리’(용의자로서의 사루코 역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재일조선인) 역시 북한의 또 다른 테러를 ‘추리’하게 하는 동시대의 북한 보도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동 소설은 전반부에 방점을 찍고 읽으면 북한송환사업이 추진되었던 1959년 당시의 한국 비판론으로 읽을 수 있고, 후반부에 방점을 찍고 읽으면 소설이 발표된 동시대의 북한 비판론으로도 읽을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 立原滋樹「ソウル五輪に不気味なカゲ」『世界週報』1988年2月16日, p.25

10) 孫忠武「金賢姫とソウル五輪をめぐる情報戦」『朝日ジャーナル』1988年5月6日 / 13日, p.52

3. 내러티브의 가공성과 내파하는 ‘냉전’

소설 「자두건」은 방점의 위치에 따라서 북한 비판론과 한국 비판론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실은 내러티브가 초등학교 6학년인 ‘나’라는 사실에 주목하면 또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나에게는 우익이라는 말의 의미도 알지 못했고, 북과 남의 구별 역시 알지 못했다. 윤정철이 왜 일본인 아내와 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단지 왜일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191쪽)라고 말하고 있듯이, ‘나’는 북한송환사업을 둘러싼 동시대의 대문자 공적 언설과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동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철모르는 소년은 아니다. 예를 들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분위기에 대해서 ‘어쨌든 썩 주택과 마치 판잣집 같은 장옥(長屋)이 밀집한 구역은 한 달 가까이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형사도 오늘 밤의 정숙함의 이유를 알고 있었다’(187쪽)라고 말하고 있듯이, ‘나’의 집과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전혀 다른 주택가인데도 불구하고 남북의 ‘이상한 상황’을 정확히 캐치하고 있고, 또한 형사는 사건 당일의 ‘정숙함의 이유를 알고 있었다’라고 확신적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영리하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나’의 내러티브를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 내러티브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려낼 수 없는 세계는 무엇인지, 즉 소년 내러티브의 가공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 소설 속의 살인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으로 귀국하는 최규일의 범행으로 잠정적 결론에 다다르는데, 주목할 부분은 동 소설의 제목이 「자두건」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설의 방점은 조금 다른 곳에 찍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줄거리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커밍아웃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루코는 살해당한 소노코가 사실은 ‘자두건을 쓴 점쟁이’라고 밝히지만, ‘나’는 사루코가 평소에도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는 것이 특기’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또한 수사 결과 사루코가 ‘점쟁이’라는 사실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루코가 가르쳐 준 학교 후문 근처에서 색이 바랜 자두건 속에서 ‘작은 자기 그릇과 주사위가 5개, 텅 빈 지갑이 3개’가 나온 사실을 생각하면, 동 소설은 경찰 수사와 신문 보도와 같은 공적 언설과는 달리 ‘나’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공적으로 언어화되지 않는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대치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학교에서 발견된 자두건과 소노코의 살인사건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것 역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는 것이 특기’인 사루코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나’의 내러티브는 단순한 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실은

사루코가 범인일 가능성과 또는 적어도 사루코가 동 사건에 깊이 관여한 용의자 중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소설 속에 나타나는 공적 언설과 그와 같은 공적 언설을 내파하려는 비공적 언설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구조는 소설이 발표된 동시대의 북한에 대한 보도 구조와도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게이오대학의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교수는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은 일종의 ‘벼랑끝 정책(瀕戶際政策)’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구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벼랑끝 정책이란 일종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블러프(협박, 엄포)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르다. 실제로 북한이 한국과의 전쟁을 계획하고 있을 리는 없다. 어떠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올림픽의 평화리의 개최가 북한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깨거나, 또는 참가국을 적게 하기 위해서 테러 활동을 한다든지, 소규모의 군사적 충돌이나 도발을 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벼랑끝 정책으로써 실행될 범위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군사적 충돌을 상정하거나 한정 전쟁론으로 생각하는 것은 블러프와 리얼리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고에서 발생하는 오해일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을 경계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터무니없이 전쟁의 위험만을 강조하면 경계론에 빠지게 됩니다.¹¹⁾

오코노기 마사오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발생하는 북한의 테러에 대해서 ‘군사적’(블러프) 측면을 강조하면서 ‘전쟁론’만을 도출해내는 분석은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벼랑끝 정책’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에서 유래된 ‘오해’라는 것이다. 즉, 북한의 군사적 ‘블러프(협박, 엄포)’는 단순히 특정 ‘정책적 목적(올림픽 개최를 교란)’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블러프’의 위협만을 강조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리얼리티’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 보도에 나타나는 ‘블러프와 리얼리티’의 이중적인 구조를 경유하면서 다시 소설 「자두건」에 주목해보면, 살인사건(=블러프)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민단계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으로 귀국하는 조총련계의 최규일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경찰 수사와 공적 언설은 ‘군사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전쟁론’을 전개하는 북한 강경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찰 수사와 공적 언설을 상대화하면서 또 다른 가능성(=리얼리티)을 도출시켜 내리는 ‘나’의 내러티브는 오코노기 마사오가 지적한 ‘벼랑끝 정책’의 이중적인 구조와의 동일성 역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11) 伊藤憲一・小此木政夫・佐藤勝巳(1988.6)「ソウル五輪 危機と抑止の構造」『知識』, p.33

그렇다면 문제는 동시대의 북한 강경론에서 나타나는 이중적인 구조, 즉 ‘블러프와 리얼리티’라고 하는 구조적인 일치성이 확인되는 동 소설은 어떠한 ‘리얼리티’를 도출시키려 하고 있을까 인데, 먼저 ‘나의 내러티브의 가공성에 주목하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친구 ‘사루코’의 용의자설이 유력해진다. 예를 들면, 죽은 소노코의 최초 목격자는 ‘나’를 포함한 친구 4명인데, 파출소에 신고를 하러 간 사람은 다름 아닌 사루코이다. 물론 사루코가 신고를 하러 간 것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사루코의 용의자설을 전제로 소설을 다시 읽어보면 골목길에서 비틀비틀 나와 눈앞에서 쓰러진 소노코를 목격한 사루코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소노코의 오른쪽 손가락 끝은 얼음을 뚫고 도랑에 잠겨 있었지만, 우리들은 그것이 이따금 움직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182쪽)라고 묘사되어 있듯이, 아직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또한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를 알아볼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사루코의 현장 이탈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사루코가 파출소에 신고를 하러 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의 범행을 단정짓는 것은 너무 비약적인 ‘추측’이지만, 위와 같은 ‘추측’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사루코의 반응이다.

형사는 내 이름과 나이, 그리고 주소와 학교 이름을 묻고는 수첩에 적었다.

「몇 시쯤이지?」

나는 20분정도 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가 봤을 땐 벌써 저기에서 쓰러져 있었니?」

나는 머리를 저었다.

「여기에서 나왔어요」

고철을 놓아둔 곳과 와타나베 아파트 사이에 사람 한명이 겨우 다닐 수 있는 좁은 공간을 가리키며, 소노코는 이 안쪽 장옥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노코(園子)라……. 고우엔(公園)의 엔(園)이니?」

「하나조노(花園)의 소노(園)입니다」

사루코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말한 뒤, 우리들을 불안한 듯 쳐다봤다.(184-185쪽)

경찰은 화자인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노코의 이름에 대해서 돌발적으로 반응하는 사루코의 모습과 그런 본인의 반응을 뒤늦게 깨닫고는 ‘우리들을 불안한 듯 쳐다봤다’라는 기술 역시 소노코의 죽음에 대해서 사루코가 어떠한 형태로든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루코의 진술과는 달리 소노코가 ‘자두건을 쓴 점쟁이’라는 사실이 동네 사람들 그

누구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사건을 보도하는 신문에도 실리지 않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루코를 ‘거짓말쟁이’라고 놀리는 ‘나’에게 ‘그 때마다 사루코는 입을 삐죽거리며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198쪽)라고 되어 있듯이, 작품의 곳곳에는 사루코를 용의자로 간주하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능한 기술이 다수 발견된다(경찰 수사에 의해서 죽은 소노코가 ‘상당한 저축’이 있었다는 사실과 자두건 속에서 ‘텅 빈 지갑 3개’가 발견된 설정 역시, 부모 없이 누나 요시코(芳子)가 나이를 속이고 카바레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난으로 인한 사루코의 절도를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 불가능한 기술을 기준으로 동 소설에서 사루코를 소노코를 죽인 진범이라고 단정적으로 읽어낼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해석 불가능한 기술에 주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 및 공적 언설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북한으로 귀국한 최규일을 범인으로 확정지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소설 「자두건」은 결코 순진하지만은 않은 ‘나’라는 치밀하게 가동된 소년 내러티브를 이용해서 소노코의 죽음을 둘러싼 공적 언설을 상대화시키고 있고, 동시에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는 소설이 발표된 동시대의 독자들에게 북한의 테러라고 하는 군사적 ‘블러프’ 때문에 은폐되는 ‘리얼리티’를 상상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4. 공모하는 남북

그리고 이와 같은 소설의 이중적 구조와 88서울올림픽 직전의 북한의 보도에서 나타나는 이중적인 구조의 동일성은 실은 30년 가까운 시간차를 두고는 있지만, 전후 냉전시대의 틀 속에서 보면 한국과 북한은 ‘냉전’ 그 자체의 구조적인 역학을 서로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정계 양면에 걸쳐서 다양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최대의 정치적 인 목적은 남북조선과 해외 동포 및 한국·미국·일본 등의 서구진영에 대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위성을 선전하고, 「정치적 승리」를 얻는 것에 있었다. 일본정부의 내각 승인 직후인 59년 2월 16일, 내각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귀국이 실현되면 남북조선 전체의 인민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조선 동포들에게 큰 정치적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 근로자들과 남조선 인민들, 그리고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이고 매국노가 누구인지를 보다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¹²⁾

이제는 남북 경제력에 큰 격차가 난 오늘날, 더욱이 서울 올림픽 개최에 성공해서 더구나 공산권 국가의 전면적인 참가를 이끌어 낸다면, 외교적, 정치적으로 한국의 지위가 한 순간에 높아져 북한은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러한 정세가 정착하게 되면, 남북통일은 국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조선반도의 분단이 고정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 만큼 북한으로서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서울 올림픽 개최를 방해하든지 남북 공동개최 방식을 취해서 대외적으로 대등한 입장을 확보하려 해 왔고 앞으로의 1년간도 같은 노선을 취하며 노력을 전개할 것이 분명하다.¹³⁾

전자는 1959년의 북한송환사업을 추진했던 북한의 의도를 설명한 것이고, 후자는 약 30년 뒤에 열린 88서울올림픽을 추진했던 한국의 의도를 설명한 문장이다. 전자는 북한송환사업의 정치적인 목적이 ‘남북조선과 해외 동포 및 한국·미국·일본 등의 서구진영에 대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위성을 선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후자는 88서울올림픽의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 ‘서울올림픽 개최에 성공해서 더구나 공산권 국가의 전면적인 참가를 이끌어낸다면, 외교적, 정치적으로 한국의 지위가 한 순간에 높아져 북한은 큰 타격을 받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30년 가까운 시간차를 두고 있음에도 ‘냉전’의 틀 속에서 ‘체제의 우위성’을 대외적으로 확인시키려는 의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인도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북한송환사업과 ‘세계평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88서울올림픽이라고 하는 두 개의 빅 이벤트는 표면적으로는 달콤한 휴머니즘을 말하고 있지만, 서로의 속내는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우위성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울 만큼 구조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1959년의 북한송환사업과 동 소설이 발표된 88서울올림픽과의 구조적인 동일성을 경유하면서 다시 ‘나’라고 하는 내러티브의 가공성에 주목해보면, 결국 소년 ‘나’의 내러티브에 의해서 부각되는 사루코의 용의자설은 ‘냉전’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학 관계 속에서 공적 언설이 되지 못한 많은 기억들을 되살리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재일조선인이 북한으로 귀국한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는 취업에 대한 차별문제, 둘째는 북한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해서 사회주의 건설, 그리고 셋째는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생활보호비 삭감 정책(결과적으로 재일조선인의 귀국을 통해서 역사적·

12) 菊地嘉晃(2009.11)『北朝鮮歸国事業』中央親書, p.134

13) 長谷川慶太郎『“初の平和的政權交代”近づく—ソウル五輪を控えた韓国の課題』『世界週報』1987年2月17日, pp.12-13

도의적 책임을 회피) 등을 이야기하는데¹⁴⁾, 소설 속에서는 소년 ‘나’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송환사업에 대한 일반화된 공적 언설에는 회수·환원되지 않는 많은 단편적 기억들이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1)신체검사에서 항상 ‘영양요주의’ 판정을 받으며 ‘어느 과목도 40점 이상’을 받은 적이 없지만 ‘끝없이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만들어 친구들의 인기를 휩쓰는 사루코, 2)북한으로 돌아간 최규일에게 돈을 빌리고 못 갚은 ‘속죄’로 오사카 역으로 배웅을 나간 앳짱의 어머니, 3)조선인을 싫어하면서도 최규일에게 약점을 잡혀 배웅을 나간 다케모토의 아버지(소노코와 내연관계), 4)북한으로 귀국하는 윤정철을 따라가지 않고 홀로 남아 울기만 하는 일본인 아내, 5)북한으로 떠나기 전에 일본인 남자친구와 마지막 탁구를 즐기는 사루코의 누나 요시코, 6)탁구장 2층에 있는 사루코의 방과 탁구장을 몇 번이나 왕복하다가 결국 ‘일본인’이라고만 생각했던 요시코가 그것도 모래 일본을 떠난다고 하는 요시코의 기이할 정도로 들뜬 행동(200쪽)에 실망한 나머지 사루코에게는 한 마디 말없이 돌아와버린 ‘나’, 7)커밍아웃과 누나의 결정에 따라 북한으로 귀국한다며 ‘나’의 집에 마지막 인사를 와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복고양이(まねき猫)를 노려보기만 했’던 사루코의 애처로운 눈빛 등, 소설 「자두진」은 북한송환사업을 둘러싸고 공적 담론화되지 않고, ‘냉전’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정치적 담론으로 회수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관계성과 개인성을 그려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동 소설은 본고의 서론부분에서 이구치 도키오가 말한 것과 같이 「「대일본 제국」의 죄와 벌, 즉 일본인의 가해자성을 그려냈다가보다는 오히려 전후의 ‘냉전’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이항대립적인 관계에서 배제된 다양한 재일조선인과 일본인과의 관계를 그려내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5. 나오며

올림픽현장 제1장 제1조에는 올림픽의 목적은 ‘스포츠의 기본인 신체적·도덕적 자질의 발달을 도모한다. 스포츠를 통한 상호이해의 증진과 우호의 정신으로 젊은이들을 교육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게 된다’¹⁵⁾라고 되어 있듯이, 1981년에 88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당시 많은 미디어는 ‘서울올림픽은 분단국가, 반공국, 중진국으로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

14) 梁泰昊(1996.4)『在日韓人・朝鮮人読本』緑風出版, pp.100-102

15) 藤原健固(1994.3)「ソウル五輪開催の背景と韓国国家発展に及ぼした影響に関する研究(1)」『社会科学研究』, p.41

최'16)된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면서, 특히 올림픽 유치 당시 한국 측이 ‘분단국가에서의 올림픽이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과 올림픽 위원회의 분단국가에서의 올림픽 개최는 ‘세계평화’에 크게 공헌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결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오구리 게이타로(小栗敬太郎)가 ‘세계평화’라고 하는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올림픽 개최는 ‘한국 내부에서의 통일지향의 고조는 과연 어디까지 당국의 계산대로 실현되었을까? (중략)올림픽 전략 성공의 산물인 젊은이들의 「통일」의 외침을 당국이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역사의 알곳은 진보를 본다’17)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분단국가 한국에서의 올림픽 개최는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학생회담(광복절인 1988년 8월 15일, 판문점에서 개최를 예정)을 고조시켰지만, 결과적으로 1988년 8월 9일에 제주도 한라산에서 출발한 한국 측 대학생들의 ‘국토순례대행진’은 회담 장소인 판문점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 8월 14일과 15일에 걸쳐서 서울에서(연세대학교) 경찰 기동대에 진압되고 만다. 즉, 최초 한국 측은 남북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올림픽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단독 개최는 민족분단을 고정화한다고 하는 한국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올림픽 그 자체를 방해하려고 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국제적인 한국의 이미지 손상을 각오하면서까지 남북학생회담을 저지했다.

공권력을 이용한 한국정부의 남북학생회담 저지는 ‘냉전’을 내파하려고 모인 학생들이 결국은 ‘냉전’의 역학에 묻히는 구조인데, 이와 같은 모습은 소설 「자두진」의 마지막 장면에서 사루코의 용의자설에 힘을 실어주는 점쟁이 소노코의 변색된 ‘보라색 긴 천’과 그 속에 싸인 ‘작은 자기 그릇과 주사위가 5개, 텅 빈 지갑이 3개’를 발견한 이후의 ‘나’의 다음과 같은 행동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손을 떨며 서둘러서 그것들을 다시 묻고, 묻고 난 땅을 즙화로 힘껏 밟았다.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마음에 가방과 삼각지를 양손으로 쥐고 후문을 나왔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 또 비가 올 것 같았기 때문에, 주위를 살피면서 다시 돌아가 더욱 강하게 땅을 밟아 다졌다.(203쪽)

가공된 ‘나’의 내러티브의 목적은 경찰 수사 및 언론 보도 등의 공적 언설을 상대화시키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나’는 친구 사루코와 죽은 소노코와의 관계를 입증해 줄 자두진과 그 외의 물건에 대해서 경찰에 알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혹시라도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은

16) 西村敏生「分断国家・韓国の期待と不安」『朝日ジャーナル』1981年10月16日, p.19

17) 小栗敬太郎「政治駆け引きに翻弄された南北共催への道」『朝日ジャーナル』1988年8月26日, p.15

아닐까 라는 마음’에 ‘주위를 살피면서 다시 돌아가 더욱 강하게 땅을 밟아 다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냉전’을 내파하려고 모인 학생들이 결국에는 ‘냉전’의 역학에 저지당하는 것처럼, 공적 언설을 내파하려고 했던 소년 ‘나’의 내러티브가 결과적으로 공적 언설 앞에서 좌절하는 모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소설 「자두건」은 88서울올림픽의 문맥에서 분석을 해보면, 방점의 위치에 따라서 한국 비판론으로도 또는 북한 비판론으로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소설의 구조적 특징을 통해서 북한송환사업과 88서울올림픽은 30년 가까운 시간차를 두고 있음에도 ‘냉전’의 틀 속에서 ‘체제의 우위성’을 대외적으로 확인시키려는 의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인도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북한송환사업과 ‘세계평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88서울올림픽이라고 하는 두 개의 빅 이벤트는 표면적으로는 달콤한 휴머니즘을 말하고 있지만, 서로의 속내는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우위성을 피하려 했다는 점에서 놀라울 만큼 구조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동 소설은 우리들 독자들에게 남북이 ‘냉전’의 구조 그 자체를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역학 때문에 배제된 사람들의 다양한 관계성과 개인성을 사유해야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高崎宗司(2005.5)「なぜ、いま帰国問題か」『帰国運動とは何だったのか』平凡社, p.6
 井口時男(2003.6)「解説 日本の罪と罰」『戦後短編小説再発見①事件の深層』講談社文芸文庫, pp.232-233
 宮本輝(1987.1)「紫頭巾」『新潮』
 宮本輝(1987.6)「五千回の生死」『新潮文庫』
 藤原健固(1994.3)「ソウル五輪開催の背景と韓国国家発展に及ぼした影響に関する研究(1)」『社会科学研究』14(1), p.41
 藤原健固(1994.3)「ソウル五輪開催の背景と韓国国家発展に及ぼした影響に関する研究(2)」『社会科学研究』14(2), pp.102-108
 立原滋樹(1988.2.16)「ソウル五輪に不気味なカゲ」『世界週報』, p.25
 影近(1988.6)「編集後記」『知識』, p.350
 小川和久(1988.10)「ソウル五輪とテロリズム」『文藝春秋』, p.96
 編集部(1959.3.8)「北朝鮮帰還の波紋」『アサヒグラフ』, pp.10-11
 _____(1959.12.17)「日赤センター爆破計画」『朝日新聞』
 孫忠武(1988.5.6/13)「金賢姫とソウル五輪をめぐる情報戦」『朝日ジャーナル』, p.52
 伊藤憲一・小此木政夫・佐藤勝巳(1988.6)「ソウル五輪 危機と抑止の構造」『知識』, p.33
 菊地嘉晃(2009.11)『北朝鮮帰国事業』中央親書, p.134
 長谷川慶太郎(1987.2.17)「"初"の平和的政権交代" 近づく一ソウル五輪を控えた韓国の課題」『世界週報』, pp.12-13

梁泰昊(1996.4)『在日韓国・朝鮮人読本』緑風出版, pp.100-102

西村敏生(1981.10.16)「分断国家・韓国の期待と不安」『朝日ジャーナル』, p.19

小栗敬太郎(1988.8.26)「政治駆け引きに翻弄された南北共催への道」『朝日ジャーナル』, p.15

논문투고일 : 2014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7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7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7월 20일

<要旨>

북한송환사업과 공모하는 ‘냉전’

- 미야모토 테루 「자두건(紫頭巾)」을 중심으로 -

본고에서는 1959년의 북한송환사업을 다룬 미야모토 테루의 소설 「자두건」을 중심으로 동 소설이 발표된 동시대의 문맥, 즉 88서울올림픽을 둘러싼 남북관계 및 냉전체제 속에서 1959년의 북한송환사업이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유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1959년 12월 13일, 북한으로 귀국하기 전날에 발생한 살인사건(용의자는 북한으로 귀국하는 재일조선인)을 다룬 동 소설은 88서울올림픽 직전의 남북 공동개최에 대한 논의 및 북한의 테러 등의 문맥과 비교하면서 해독을 해보면, 소설의 전반부에 방점을 찍고 읽으면 북한송환사업이 추진되었던 1959년 당시의 한국 비판론으로 읽을 수 있고, 후반부에 방점을 찍고 읽으면 소설이 발표된 동시대의 북한 비판론으로 읽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중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 동 소설은 북한송환사업을 둘러싸고 ‘냉전’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정치적 담론으로 회수/환원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관계성과 개인성을 그려내고 있고, 또한 북한송환사업과 88서울올림픽은 30년 가까운 시간차를 두고 있음에도 ‘냉전’의 틀 속에서 ‘체제의 우위성’을 대외적으로 확인시키려는 의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인도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북한송환사업과 ‘세계평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88서울올림픽이라고 하는 두 개의 빅 이벤트는 표면적으로는 달콤한 휴머니즘을 말하고 있지만, 서로의 속내는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우위성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울 만큼 구조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동 소설은 우리를 독자들에게 남북이 ‘냉전’의 구조 그 자체를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역학 때문에 배제된 사람들의 다양한 관계성과 개인성을 사유해야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Cold War’ in Conspiracy with North Korea Repatriation Project

- Focusing on Miyamoto Teru 「Purple Hood」 -

Focusing on Miyamoto Teru's novel 「Purple Hood」 covering North Korea repatriation project in 1959, we analyzed why and how North Korea repatriation project in 1959 is thought in the context of the age when the novel was published, that i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old war system around 1988 Seoul Olympics

Interpreting comparing with the context such as North Korea's terror and discussion on co-hosting of South and North Korea just before the 1988 Seoul Olympics, it can be seen that the novel covering a murder case (The suspect is a Korean resident in Japan returning to North Korea) that happened the day before returning to North Korea in December 13, 1959 has the structure that can be read as criticism on South Korea at the time of 1959 when North Korea repatriation project was promoted if read emphasizing the first half of the novel and that can be read as criticism on North Korea of the age when the novel was published if read emphasizing the second half of the novel.

The novel taking a dual structure as above is describing a variety of relationships and personalities of many people not recovered/repatriated based on political discourse in the ideology of ‘cold war’ around North Korea repatriation project and showing that there was no change in the intention of externally revealing ‘superiority of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cold war’ despite the time difference of 30 years between North Korea repatriation project and 1988 Seoul Olympics.

In other words, the structure of two big events, North Korea repatriation project under the slogan of ‘humanitarianism’ of ‘freedom of residence choice’ and 88 Seoul Olympics under the slogan of ‘World peace’ is surprisingly the same in that they are talking about sweet Humanism on the surface but showing off ideology and national superiority internally. It can be seen that the novel tried to make we readers think of the fact that South and North Korea were conspiring the ‘cold war’ structure itself and various relationships of people excluded because of the dynamics of such ideology.